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 속에 나타난 '청년' 표상과 이데올로기적 환영

2023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유현성

통일부장관 귀중

목 차

1. 서론

2. 북한의 이데올로기 특성 -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론

3. 과학환상소설의 서사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

4.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균열들
 4.1 과학신성주의
 4.2 청년 여성 과학자의 과학적 보조와 정서적 보조
 4.3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4.4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

5. 정책적 시사점

6.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특징들과 균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 북한의 사회 이데올로기의 분석 가능성을 탐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10편의 과학환상소설을 분석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과학신성주의가 나타났다. 과학 기술 담론을 신성화하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통해 욕망하게 만듦으로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여성 청년의 남성 과학자 보조역활이다. 여성은 남성의 증상이자 동시에 결여로서 상징화되고 이를 보완함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이다. 제국주의라는 '원쑤'를 상정하는 북한 문학의 특징은 여전히 계보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적대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타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다. 장마당 세대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들로 장마당이라는 자본적 경험을 해왔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자본에 대한 검열 없는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 속에 나타난 ‘청년’ 표상과 이데올로기적 환영

1. 서론

본 연구는 문학사회학적 방법으로 김정은 시대[1] 과학환상소설[2]에 타나난 ‘청년’[3] 표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분석하는데 목표가 있다.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정책’과 ‘과학 중시 사상’이 결합되는 문화예술의 지점으로서 과학환상문학이 존재한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곧 당정책을 반영하여 형상화하고 ‘주체적 인물’을 양산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이러한 표상적 층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과 북한의 동시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분단에 대한 우리의 상처는 아물었을까? 어쩌면 분단은 의미화가 정지된 상처로도 느껴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가장 은폐되고 오래된 증상은 아마 ‘분단’과 ‘통일’일 것이다. 분단 이후 점차 북에 대한 적대감, 타자성이 강화되면서 민족-국가라는 ‘통일 담론적’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느껴진다. 종전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60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처, 한국전쟁, 이산가족 등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 의무적으로 통일을 주장한다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그것은 가까운 상처거나 중요 사안이 아닌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 상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분단이 한국 사회에 어

---

1) 본고에서 “김정은 시대”는 김정은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2010년부터 집권 이후 현재(2023년)까지를 김정은 시대라 규정하고자 한다.

2) 과학환상문학은 과학과 기술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투쟁, 그들의 생활을 환상적으로 그려낸다. 다시 말하여 과학환상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앞날에 펼쳐질 형상적 화폭으로 그려내며 환상적인 수법으로 일정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다.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6면.

3) 본 연구에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북한 정부체제에서 청년은 청년기를 만 14세부터 30세까지 포괄하는데, 이는 청년동맹에 가입 가능한 연령대를 지칭한다. 연대기에서 볼 때 이들은 1990년대에 출생한 세대들이다. 흔히 이들을 ‘장마당 세대’라 규정하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경제난,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경험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경제난과 체제이완으로 사상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장마당의 영향으로 외부세계의 문화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념보다는 경제활동에 관심이 많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 권력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체제에 대한 학습이 부재함으로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정책은 더 완강한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내세우고 있다. 정리하자면 문화적으로는 ‘장마당 세대’, 연대기로서는 1990년대 출생한 30대 미만의 청년들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떤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적 측면에서 통일은 기존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청년 주체들에게 있기에, 이 점은 꼭 생각해봐야할 지점이다.

내셔널리즘적(국가론적) 감성으로 통일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말하기에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이진 않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스로 붕괴한 북한을 흡수한 남한'이라는 가설일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 뿐만이 아니라 잔존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충돌, 남한의 자본력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2등 시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국 전쟁 이후 문학은 분단과 통일에 대해 엄청난 작품들과 비평들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해결책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학 내부'에서만 담론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문학은 문제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제도나 법적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기존의 통일 담론은 사회학·정치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층위로서만의 논의는 국민이나 시민으로까지 닿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의 의무 부담으로만 다가왔다. 따라서 실질적 통일 주체가 될 청년 주체의 의견을 묵살 되고 말았다. 기존의 통일담론들, '흡수통일론', '평화통일론', '통일대박론', '민족통일론' 등의 담론들은 아래와 같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민족이라는 통일 당위성에 위협을 가했다. 민족통일론의 경우 분단된 시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동일한 민족임만을 강조하여 남과 북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둘째로 국가 중심의 통일 담론 형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통일대박론이나 흡수통일론은 '사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다. 셋째 남북간의 통일 인식 차이를 불러왔다. 특히 실리적 이유를 들며 통일을 운운한 것은 크나큰 낙차를 불러왔다.

그런데 한편으로 통일의 주체의 분열도 이상하다. 지금까지의 평화적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우리가 흡수 통일이 아닌 협의 통일은 김 정권과 논의해야 하는 이상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남한 입장에서 통일 주체들은 모든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실제로 통일 논의들은 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열들이 오히려 남한 주민들에게 통일을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한편으로 통일에서의 북한과 분단에서의 북한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에서의 북한은 민족, 동포, 동질이 강조되고, 분단에서의 북한은 전쟁 위험, 이념 차이, 국방 등이 강조된다. 즉 우리 내부에서 조차도 북한이 타자인지 민족인지에 대해 혼란이 매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 앞에서 우리는 '북한'이 어떤 국가인지, 통일과 분단은 어떤 증상인지 알아야 할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문학은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주체문예이론, 수령형상화문학 등의 문학이론이 이데올로기의 주요한 테제를 반영하고 북한 주민의 심리를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김정은은 첨단 기술을 육성하여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여러 문예지에서는 '과학기술 강국'과 관련된 소재의 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했다.[4] 공통적으로 과학환상소설에 있어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과학환상소설이 다루는 핵심적 본질은 인간에게 있으며[5] 철저히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텍스트로서 '우리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창작'되어야 하는 분야다. 즉, 주체형의 인간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6] 결국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은 인간문제 해결이며 사회문제 해결의 목적을 가진 장르인 것이다.[7]

위의 과학중시 정책 방향과 더불어 '청년중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김정은은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를 노동당의 발전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청년대장'으로 호명되었고 '청년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활용했다.[8] 장마당 세대인 젊은 청년들을 분열을 규합하기 위해 북한은 '청년 전형',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에 대한 고상한 도덕 의리심,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 근면성과 순박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9] 이러한 김정은 체제에서 첨단과학기술에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대부분 20~30대 과학자다.[10] 이처럼 김정은 시대의 청년상과 과학기술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이며 정치적 욕망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서동수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 김정은 시기 과학환상문학 속의 청년은 이상적인 청년과학자의 표상을 넘어 수령 김정은의 은유이자 메시아의 표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문학은 청년을 통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과학적 해결을 시도하는 서사인 것이다.[11] 이렇게 '청년'과 '과학기술'은 과학환상문학에서 결합되어 김정은 체제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 점을 주목한 연구는 앞선 서동수의 논문뿐이며, 문학적 분석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는 진행되지 못

---

4) 지신영,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향하는 과학환상소설 분석 :「숲을 사랑하라」, 「숲은 젊어진다」를 중심으로」, 고황논집, 69,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87면
5) 지신영, 위 논문 97면.
6)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환상성과 인물의 형상화 방식」, 동화와번역 27,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4. 158면
7) 임인화, 「교양교육 제재로서 북한 과학환상소설 역할 연구-『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수록본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8) 배영원,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7권, 통일연구원, 2018.108~109면
9) 배영원, 위 논문, 112면 재인용
10) 송현진,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5권, 북한연구학회, 2021. 252~253면
11)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수난의 서사와 메시아니즘」, 스토리&이미지텔링,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19권 2020.101~102면, 106면 참고

했다.

‘청년’이라는 문학적 표상은 실제 청년 계층에 대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 형상화된다. 즉 사회문제의 타결을 위한 ‘청년’의 수행적 욕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결국 ‘청년’은 오히려 북한 이데올로기 체제의 ‘결여’를 의미한다. 오히려 현실의 ‘청년’ 계층과 균열(결여)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학적 형상화, 수령에 대한 은유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장마당 세대들인 북한의 ‘청년’ 계층은 자본주의를 일부 체험했고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을 체험한 세대이다. 즉 북한 정치 이데올로기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세대인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논문들은 총 17편이다. 다만 ‘과학중시’와 ‘청년중시’를 동시에 다룬 논문은 서동수의 논문 1편이며 타 논문들은 ‘김정은의 청년전형’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과학환상문학에 대한 논문으로 나뉜다. 먼저 ‘김정은 시대의 청년전형’에 대한 연구들로 박정은의 논문이 있다. 그는 『조선문학』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청년 전형을 연구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와는 대별점이 있다. 정책적 연구로는 전일구의 논문과 황일화의 학위논문이 존재하며[12], 송현진은 북한 국가 정책과 청년 중시를 연구하였고[13] 배영원 역시도 이를 연구하였다.[14] 강민정은 TV미디어에 나타난 북한 청년 정책을 연구했다.[15] 김성경은 북한 청년의 심리와 문화적 실천에 대한 정체성을 연구했다.[16] 해당 논문들은 정책적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북한의 문화예술 체제와 관련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서동수의 논문이 다수였다.[17] 압도적인 편수로 북한의 과학환상문학을 연구했는데, 먼저 가장 본 연구와 연관이 깊은 연구가 청년 표상과 수령의 은유, 수난의 서사와 메시아니즘이다. 그는 청년 표상을 수령에 대한 간접적인 은유로 이해하고 이를 우상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갔다. 수난의 서사

12) 황일화, 「북한의 청년중시정책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전일구, 「북한 청년에 대한 기대역할 변화 양상 연구 :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3) 송현진, 「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5권, 북한연구학회, 2021.
14) 배영원,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7권, 통일연구원, 2018.
15) 강민정, 「김정은 시대 TV미디어에 나타난 북한의 청년 정책 연구-조선중앙 TV의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0권, 한국아시아학회, 2017.
16)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5.
17)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수난의 서사와 메시아니즘」, 스토리&이미지텔링,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19권 2020.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특이점 - 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77권 2020.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잉열정’과 과학적 해결 방식」,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73, 2016.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파타포(pataphor)적 상상력과 향유 없는 유토피아」,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55권, 2015.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내적형식과 교육서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2016.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형성과 소련의 역할」,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3권 2013.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학의 현장성과 소련의 영향 -현장중심의 과학담론과 주제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2015.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환상성과 인물의 형상화 방식」, 동화와번역 27,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4.

는 곧 메시아적 의미로서 작동되는 이데올로기적 조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단순 우상화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제 청년 세대에 대한 당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심도 있게 펼쳐지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환상문학의 특이점을 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논문, 과잉열정과 과학적 해결 방식에 대한 논문, 유토피아적 시각으로서의 과학환상문학, 등 다양하게 과학환상문학을 연구했다. 이외에도 임인화는 교양교육 제재로서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의 역할을 연구했고[18], 지신영 역시도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환상소설을 분석했다.[19] 이 연구들 역시 북한 체제에 대한 입체적인 방식으로 분석한 것은 맞으나 정책적 연결점을 도출했을 뿐 이데올로기적 의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학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과학환상소설 10편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이데올로기적 환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고찰은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 더욱 명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이데올로기 특성
–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론

본 연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론은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이다.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정신분석과 철학적 방법의 결합으로 이데올로기의 구체성을 밝혀내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와 북한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특수’한 국가인데,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 홀로 공산주의를 주지하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3대 독재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권력의 승계에 있어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저항이 없는 이유는 북한이 ‘극장 국가’로서 이데올로기의 환영을 잘 구축하고 교리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심상지리를 내면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이데올로기의 공고한 구축은 거의 80여년 동안 이뤄져왔다. 해방부터 지금까지 이뤄지는 공고한 이데올로기는 세계와의 고립이란 이름으로 유지되는 듯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북한 주민들도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교리와 믿음이 북한 주민의 무의식에 내재화되도록 의례를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출생 이후부터 지도자 사진이 걸린 집에서 이미지로서 먼저 이데올로기를 접하고 학교에 들어가 여러 사상 교육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구체화한다. 이후 문화예술을 통해 지속적인 의례 속에서 북한 주

18) 지신영, 앞 논문, 93면
19) 지신영, 위 논문, 97면

민을 위치시킴으로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의례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도 충분히 그 이데올로기는 구축되는데, 사회주의적 비판의 시간이나, 누구나 자신을 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특성들은 유지된다. 지젝이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나이다'로 이야기 하였듯이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돌출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유지된다는 사실에 무지하다. 탈북민들은 이 돌출행위를 통해 북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탈출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균열을 목도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다. 또한 탈북자들 중 상위 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이탈한 점 역시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과 국가를 운여하는 방식에 있어 슬라보예 지젝의 이론은 탁월한 해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젝은 이데올로기를 '교리', '믿음','의례'로 나눈다.

*교리-이데올로기적 교리는 이데올로기의 사상, 이론, 믿음과 연관 돼 있다. _ex) 자유주의의 교리는 존 로크 사상에서 발전

*믿음-이데올로기적 믿음이란 그 교리의 물질적, 외적 표출과 기제들을 가리킨다. ex) 자유주의의 교리는 언론 독립, 선거, 자유시장으로 물질화

*의례- 이데올로기적 의례는 교리가 내면화 혹은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방식_ex)자유주의에서 주체들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경험한다.

교리, 믿음, 의례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은 곧 이데올로기의 서사를 형성한다. 본 연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리는 수령의 말씀(교시)가 내재화 된 문학 작품이 될 것이며 믿음은 당정책에 의한 작품 창작, 의례는 그 작품의 감상과 심리 조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문화예술화는 북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은 이 세 측면에서 하나의 서사를 제공하며 이 서사는 곧 북한 주민의 통합적인 내적 논리를 마련한다. 특히 서사적 측면에서 자기 내면의 서사와 국가 이데올로기의 서사가 동일시 되면서 하나의 공명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그들이 울고, 환호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은 실제로 그 서사의 합일을 통해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믿음인 북한의 지도자는 독재 이데올로기가 구축해놓은 서사, 백두혈통 등과 결합하고 주체사상을 통해 온전한 교리를 배우며 문화예술 행사나 노동을 통해 그 의례를 수행한다.

또한 지젝은 주체에 대해 우리의 모든 개별적인 특징과 특정한 욕구, 관심 믿음을 제거했을 때 남겨지는 것이 바로 주체라고 정의한다. 즉 주체는 사람에 따라 개별적이며 고유한 의식의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형식이다. 이러한 '주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 주민의 심리 조직에 대해 '주체'의 입장으로도 충분히 분석

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젝의 '욕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관점 본 연구에 도움이된다. '이데올로기의 욕망'은 곧 주체의 욕망이다. "욕망은 잠재적 사고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숙이 숨겨져' 있지 않다. 욕망은 전적으로 잠재적 사고를 처리하는 기표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좀 더 분명히 '표면에' 위치한다" 즉, 담론적 표면에 '주체'가 자리 잡음으로서 사회적 욕망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욕망은 '정치적 주체'의 주민 심리 조직을 위한 욕망, 주민 심리 내부의 욕망을 밝히는데 용이할 것이다.

극장 국가로서 '북한'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선전선동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우상화'와 '적대성'일 것이다. 우상화의 경우 유일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신성적 내면 논리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든다. 적대성의 경우 내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원쑤'라는 적을 상정하여 주체들을 규합하기 위한 중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북한 체제의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지젝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상은 '케 보이?', 타자의 결여, 타자의 욕망의 견딜 수 없는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 욕망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 또한 환상이다.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도록 틀을 짜준다. 따라서 환상에 대한 일반적 정의('욕망의 실현을 나타내는 상상된 시나리오')는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모호하다. 환상의 시나리오는 … 욕망을 구성한다(욕망에 대상을 부여한다 등등). 즉 우리는 환상을 통해 욕망하는 법을 배운다. 환상의 역설은 바로 이 매개적 위치에 있다. 환상은 우리의 욕망을 조율하는 틀이지만 동시에 '케 보이'에 대한 방어, 다시 말해 타자의 욕망의 심연, 그 간극을 은폐하는 스크린이다. … 욕망은 욕망자체에 대한 방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상을 통해 구축된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대한 방어, 환상을 초월해 있는 저 '순수한' 욕망(다시 말해 순수 형태의 '죽음충동')에 대한 방어이다."[20] 즉 과학환상소설에서 환상의 이데올로기적 위치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데올로기적 욕망과 주체의 욕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기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분석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데, 분석의 첫 번째 임무는 주어진 이데올로기 장에서 그것의 총체성의 지평을 결정하는 특정한 투쟁을 분리해내는 것이며 전통적인 헤게모니 개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21] 즉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총체성의 지평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적 허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요소를 '남근적인', 발기된, 의

20)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96면
21)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52면

미의 보증물을 오른쪽에서(혹은 좀 더 정확히 정치적으로 말해서, 왼쪽에서) 주시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중심에서 입 벌리고 있는 무의미의 틈새를, 결여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2]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은 북한의 무의미의 틈새와 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북한의 '환상'의 접합 지점이다. 지젝에게 있어 "환상은 일반적으로 주체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시나리오로 이해할 수 있다. … 환상이 상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는, 즉 충분히 만족되는 장면이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것으로서의 욕망을 드러내고 무대화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23]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은 '과학'이라는 담론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이다. 이 환상은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욕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욕망을 무대화한다. 즉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이 주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이 '환상'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이데올로기적 환상과 북한의 과학적 환상은 어떻게 동일시되는가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환상은 타자에 대한 케 보이적 태도를 전제하고 발생하는 현상이다. 반면에 북한이 말하는 과학적 환상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환상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에 천착해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환상의 목표 역시도 현실 네트워크의 지속을 위한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과학적 환상이란 문학적 환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가깝다.

이러한 환상성은 현실과 이데올로기라는 두 차원의 지대를 양각화하여 보여준다. 이때 하나의 기표로 대리 표상되는 것은 '청년'이다. 청년 세대는 이 두 가지의 환상지점을 돌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본고에서 분석된 과학신성주의는 청년을 중점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신성함은 곧 신비다. 신비함은 곧 환상성을 가지고 주체를 설득한다. 환상은 신에 대한 케보이적 질문으로도 축약될 수 있는데 이 신의 위치를 과학이 점유함으로서 환상은 더욱 공고히 구축된다.

특히 이 부분에서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의 청년은 두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다. 이 남성과 여성의 과학신성주의에 대한 공고함을 상호보충적으로 결부되면서 남성이 주체적인 과학실천을 주도하는 역할로, 여성이 이 주도하는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로 과학환상소설의 서사가 전개된다. 이는 완전함과 결여의 방식으로 두 성적인 역할이 하나의 청년으로 초점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자본에 대한 감각은 새로운 현실의 기반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때 자본에 대한 기성세대와 신 세대의 감각적 차이를 보여주는데, 기성세대에게 있어 자본은 제거되어야할 물질적 대상물이지만 신 세대에게 있어 자본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물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자본의 모습들은 이데올로기의 환상이 양극적으로 균

22)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69면
23)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23면

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서사에 있어 적대적 타자로 나타나는 제국주의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의 중점을 보여준다.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은 북한 이데올로기 체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타자적 환상이다. 이 환상을 통해 적대감을 유지하며 주체들을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헤게모니를 제시한다. 이 헤게모니로 묶인 주체들은 제국주의라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집합됨으로서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봉합한다. 따라서 적대적 타자로 타나는 제국주의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이다. 그러나 이 제국주의의 실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우화되는 현상을 빚어내게 되어 그 타자의 위치를 영원성의 위치로 올려 놓는다.

3. 과학환상소설의 서사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특징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시기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과학환상소설' 중 『조선문학』과 『청년문학』에 수록된 소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문학』에도 과학환상소설이 수록되어 있지만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청년 세대를 위한 문학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려워 『아동문학』은 제외되었다. 보통 문학 연구라면 1~2편의 단편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하고 문학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10편의 의미 있는 소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미시적인 비평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소설에서 돌출된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을 내놓고자 한다.

북한이 과학환상소설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높다. 김정철의 <우리 시대 요구에 맞는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자>[24]라는 평론을 보면 "과학기술강국건성울 위한 투쟁이 펼쳐나선 우리의 천만군민에게 과학기술의 위력을 예술적 형상으로 감미롭게 안겨주면서 그들을 과학기술 탐구의 세계로 힘있게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는 과학환상소설을 보다 훌륭하게" 창작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정철은 현재의 과학환상소설이 "과학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초하지 못하고 생활의 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아직 북한환상소설이 도식적인 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 도식적인 서사에 있어 그 '도식'에 대한 해석은 남한과 달리하는데, 남한에서 도식적이라는 말인 기시감이 있고 어느 정도의 틀이 정해져 있어 지루함을 말하지만 북한에서 '도식적'이라는 말은 기존 체제와 문예 정책에 따라 작품이 창작되어야 하지만 그 문학적 상상력에 있어 기존 작품과 크게 대별이 없을 때 '도식적'이라고 한다. 이 도식성의 발생

24) 김정철,「우리 시대 요구에 맞는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자」, 『문학신문』, 2018 2월 24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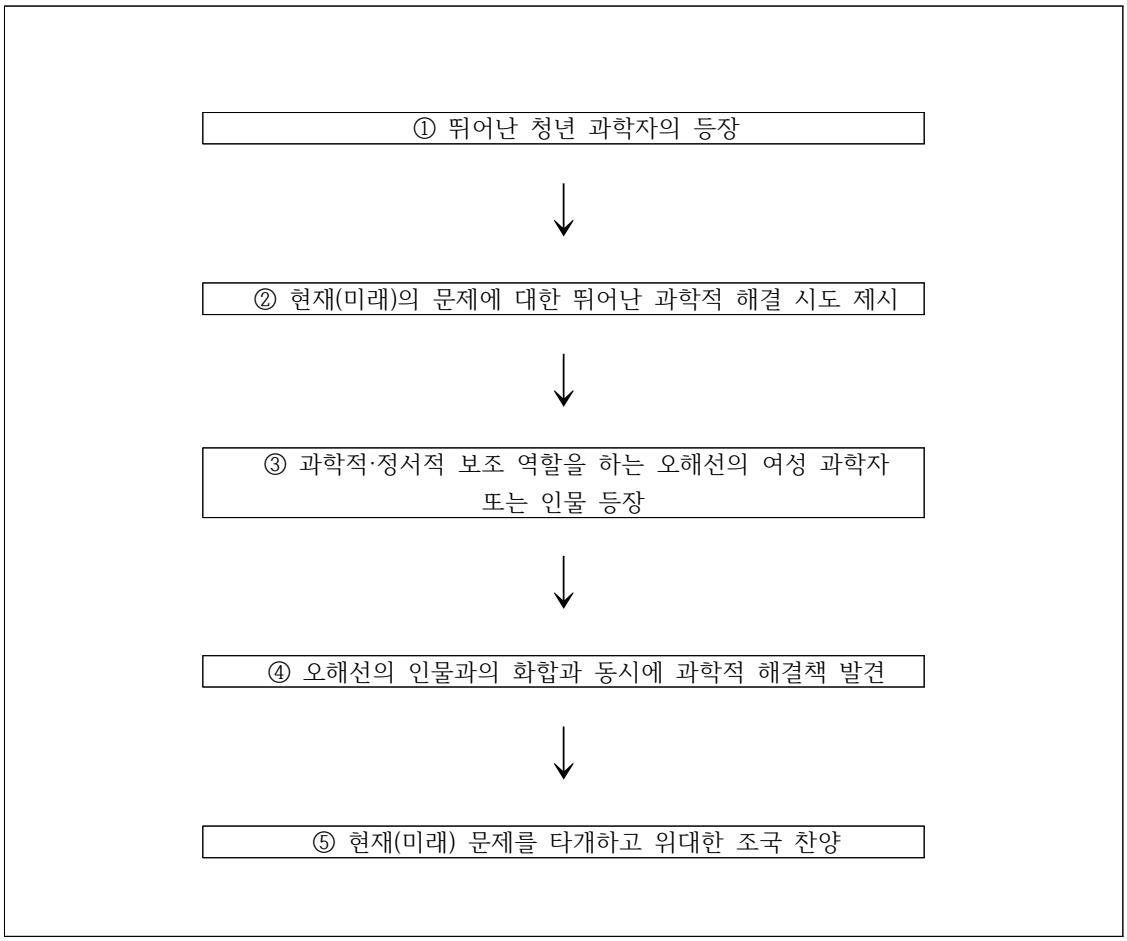
은 사실 북한 창작자들에게 난감한 표현이기도 한데, 문예 정책을 따라 작품을 창작하면 당연하게 일정한 기시감이나 도식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의 좋은 작품이란 오히려 이 도식성의 단편을 넘어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도식성을 넘었'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심리 조직의 내면화에 있어 독자에게 감동과 교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체로 도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이 김정은 시대의 북한 이데올로기의 공고화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소설이 영화화되는 재생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든 드라마든 과학환상소설이 스토리텔링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원형 서사를 중점으로 재생산하는 방법은 북한의 '5대혁명극'이나 다른 부분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지속적을 중심적인 원형서사의 위상학적 지위를 강조하고 이를 반복함으로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즐겨라 라는 초자아적 명령은 반복적이며 강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문예지를 바탕으로 연구 해당 작품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작가	작품명	출처	장르명 표기
엄희철	다시 만난 두사람	청년문학, 2014,03	과학환상소설
리금철	두 극의 방정식	청년문학 2014.08	단편과학환상소설
신승구	새날이 밝는다	조선문학 2014.04	과학환상소설
리명현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2016.01	단편과학환상소설
신승구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	조선문학, 2016.09	단편과학환상소설
리금철	항로를 바꾸라	조선문학, 2017.8,9	과학환상소설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09	과학환상소설
리명현	대양으로	조선문학, 2018.02	과학환상단편소설
엄호삼	밝은 앞날	청년문학 2018.10	과학환상단편소설
주병윤	숲은 젊어진다	조선문학, 2019,08	과학환상단편소설

<표1-김정은 시대 '청년' 중심의 과학환상소설>

위 10편의 소설들은 모두 청년이 중심이 되며 북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과학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을 소설의 소재로 한다. 과학환상소설의 특징으로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소재를 다루기도 하며 동시에 현실의 문제도 다루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재의 선택에 있어 작가의 자유로움이 부과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재의 경우 대체로 정책적 노선에 맞는 소재여야 한다. 에너지나, 환경 문제 등은 지속적을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 어려움을 과학적 환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서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심상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여러 소재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이 소설들의 서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2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의 서사적 구조>

대체로 10편의 과학환상소설들은 위와 같은 서사 전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소재 차이나 여러 인식적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서사적 구조는 10편 모두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지는 이데올로기적 서사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의 심리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서사라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김정은이라는 '메시아적'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과학 신비주의를 통해 미래에 결국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서 이데올로기적 환영의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으론 이러한 서사 구조가 분명히 집합되어 '단순한 서사 구조'가 될 공산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서사의 반복보다 이러한 서사의 연속성은 문예 정책에 기반하여 창작하는 북한 창작 현실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북한의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데올로기적이다. 문제는 이 서사 구조에 있어 도식성을 극복하고 그들이 말하는 '과학환상소설'다운 과학적 환상이 제대로 구축되었냐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과학적 환상이 현실에 발붙이고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환상이라면 일정한 과학적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마치 수학과 문학의 상관관계와 같은데 수학은 투명한 언어라 1은 1을 의미해야만 한다. 반면 문학의 언어는 '사과'는 '사과'가 아닐 수 있다. 즉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칭이 수학적 언어라면 기표와 기의의 다수적 대칭이 문학의 언어인 것이다. 북한의 창작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난점으로 잡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학환상소설이지만 김정은의 정책적 노선과도 일치해야하는 작품이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경작에 대한 소설 「숲을 사랑하라」나, 「숲은 젊어진다」는 소설은 즉각적으로 정책 노선을 반영한 작품이다. 아마 이는 북한의 문예창작 방법에 있어 '속도전'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속도전'은 종자를 잡은 이후 빠르고 속도있게 창작을 전개하여 훌륭한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속도전은 소설의 내적 긴밀함을 구축하기에는 맞는 창작 방법은 아니다. 이 두가지의 문학적 작품 균열이 이데올로기적 균열이 나타나는 또 다른 틈이다.

위와 같은 서사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난관을 이겨 나가는 서사적 구도를 가져감으로서 청년의 표상을 확연하게 들어내고 있다. 소설에서 청년은 구도자의 이미지를 분명히 수반하고 있는데 서동수가 언급했듯, 청년과학자들이 김정은을 은유한 것이라면 수령이라는 대타자의 결여를 청년과학자로 은유(다른 기표로 대리)하여 그 결여를 감추기 위한 무의식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은 하나의 기표 완전한 기표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기표가 온전하게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서는 안된다. 완전하게 나타나는 순간 무한한 의미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기표여야만 한다. 따라서 김정은이라는 기표는 무의미에 가까우며 텅빈 기표이다. 이 텅 빈 기표가 기의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중단되지 않고 무한한 의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젊은 나이로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인정할만한 성과 없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이 소련의 과학기술 찬양에서 김정일에 이르러 핵 개발까지의 특정 성과만을 다뤄 '현재적인 시간'을 다뤘다. 보통 소련이 주도한 냉전시대에 소련의 과학기술을 찬양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과학소설들이 많았다. 이후 김정일에 이르러 핵개발의 과정을 평화적인 우주 개발로 은유하여 일정한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10편의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의 시간은 유크로니아적이다. 푸코는 "어떤 인간 집단이든 그것이 점유하고 실제로 살고 일하는 공간 안에서 유토피라적인 장소들을 구획하고 그것이 바삐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유크로니아적 순간을 구획한다"라고 언급한다. 유크로니아는 현실에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은 이와 같이 '현실에 없는 시간'을 그려냄으로서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현실의 결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과학환상소설에 기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수행과 차이를 보인다.

그 시간이 현재적이지 않고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작 과학환상소설은 현실적일 수 없다. 이에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은 그 현실성 보다 청년 기표를 우위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창년 기표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와 같다. 즉 현재의 없는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불러올, 다시 말해 부활의 시간을 불러올 대체자가 청년인 것이다. 이 청년은 관점에 따라 김정은이 될수도 있지만 정책 노선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김정은에 대한 은유는 아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이데올로기의 환상 스크린이다. 이 환상 스크린은 욕망을 주체에게 지시함으로서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든다. 이 욕망에 충족하고자 할수록 북한의 문예정책은 더욱 세밀해질 수밖에 ㅇ벗다.

대체로 해당 과학환상소설은 북한의 창작방법론에 의거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주체적 인간으로 청년이 그려진다. 다만 북한에서 사회주의에 대하 적대적인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 인간에 있어 비-사회주의적인 인물을 북한에선 모두 개도했다고 주장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이렇게 종료된 교리는 방해가 된다. 북한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낙원의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시간에 덧붙여 설명한다. 창작작으로 북한은 대신 특유의 오해선을 통해 긍정적(주체적)인물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행위들을 오해하고 그 오해를 풀어가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5대혁명연극이나 여타의 서사 작품, 경희극 등에서 자주 사용한다. 10편의 과학환상소설을 살펴보았을 때, 경희극과 같은 오해선, 즉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오해선이 완전하게 부합되지는 않지만 청년의 의도를 오해함으로서 청년의 구도적 의지를 돋보이게 하는 오해선임은 확실하다.

이 서사적 구조에서 빠지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환영은 '과학신성주의'와 '보조적 역할의 여성'이다. 이렇게 두 이데올로기적 환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과학신성주의' 같은 경우 과학기술이 중요한 정책적 노선이 되면서 신성함을 부여하고 이 신성함이 곧 청년의 메시아적 태도와 결부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면 '보조적 역할의 여성'은 기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머무른 여성의 위치를 지시한다. 이데올로기는 숨길 수 있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환상소설에서 여성은 기존 북한 사회의 체제에 있어 여성의 위치와 대타자가 원하는 여성의 투사적 환영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대다수의 소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데올로기들이다.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목 / 소설	과학신성주의	여성의 정서적 보조	적대적 이데올로기	체제와 절차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문제인식		
						미래적 문제	현재적 문제	북한 사회 내부 문제
다시 만난 두사람	○	○		○		○		
두 극의 방정식	○	○					○	○
새 날이 밝는다	○	○					○	○
숲을 사랑하라	○	○	○					○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	○	○	○			○		
항로를 바꾸라	○	○	○				○	
존엄	○		○	○	○	○		
대양으로	○						○	○
밝은 앞날	○	○			○		○	○
숲은 젊어진다	○	○	○				○	○

<표3-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특징>

주관적인 연구자의 분류일 수 있으나, 10편 모두 과학신성주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 북한 내부의 정치적 지시사항에 반드시 포함된 지령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북한의 과학적 환상은 그 나름대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 작품에서는 '과학신성주의'를 심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방법론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학신성주의는 인물의 대사나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과학적 환상이라는 것이 기존 남한 연구자들이 인지하는 것과 달리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환상'이라기보단, '사회주의의 총체적 인간'인 청년 과학자들의 노력과 열정

에 대한 ‘환상적 해결’에 가깝다. 따라서 이 환상의 ‘개연성’은 아무리 과학 단어들을 나열하고 이를 어찌 맞춰 일정한 ‘논리’를 만든다해도, 결국엔 그 환상이 ‘과학신성주의’, 즉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이데올로기적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신성함’은 단순히 경외의 대상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신성함의 본질은 ‘친밀함’에 있다. 경외는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존재와 존재감이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파생된다. 하지만 신성함은 친밀함으로서 다가온다. 신성하다고 느끼는 모든 오브제들은 ‘주체’와 결부되면서 당연한 은총으로 현시화된다. 천사의 형상이 인간적인 형상을 띄는 것도 그렇고 신성한 물건이 성배나 창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것은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다가섬이 거부되는 관념이 아니다. 북한은 과학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신성함의 위치에 놓음으로서 과학을 신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여성의 ‘과학적·정서적 보조자로서의 여성 과학자’에 대한 서사적 장치가 드러나 있다. 이때 여성 과학자가 난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주도적으로 과학신성주의에 빠진 ‘신도’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오히려 과학에 대한 신앙이 남성 청년 과학자에 비해 떨어지고 그를 통해 개도하게 됨으로서 과학에 대한 믿음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여성 과학자도 뛰어난 과학적 지식과 능력이 있다. 이러한 여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사회주의적 체제’에 따른 이데올로기라기보단, 기존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유교적’ 입장의 보조적 역할로서의 여성이 강조된다. 연애의 감정을 통해 남성을 보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성모 마리아의 위치와 같다. 성모 마리아는 신성한 대상으로서 존엄성을 획득하지만 동시에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신성함을 획득한 존재다. 이에 따라 ‘결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메시아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결여되어 있는 이중적 존재인 것이다. 북한의 보조적 역할의 여성도 이러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위의 두 가지 특징 외에도 1) 현실 문제에 대한 청년 중심의 과학적 해결이 나타나 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리더라도 북한의 현시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나 정치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2) 청년이 뛰어난 실력의 문제 해결의 구도자로 나타나면서도 기성 세대에 대한 비판의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위대한 가르침의 선임자도 없었다. 3)북한이 내재한 특유의 사회 체제를 통해 과학적 해결을 승인 받는 구도를 갖는다. 그것은 토론회로 보통 나타난다.

4.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균열들

4.1 과학신성주의

검토한 소설들에 등장한 청년 과학자는 특별한 사건 없이 아주 뛰어난 지능과 성과를 이룩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은을 은유한 메시아적 존재로 상징화되기도 하지만 면밀하게 소설을 검토하다보면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난감해지는 서사로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뛰어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넘치는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 갈등을 생산하는 듯 하지만 그들이 가진 '과학신성주의'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 승인되는 일련의 공통된 서사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으로 「다시 만난 두사람」에서는 김류진의 논문에 대한 여러 논란들(사회활동에 대한 감시)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과학의 변증법적 발달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김류진의 과학신성주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처음에 그의 논문을 반대하는 순영도 그의 과학에 대한 신성한 믿음에 반해 결국 그의 논문에 대해 긍정하게 된다. 이 신성함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 《…과학기술의 덕으로 얼마나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덕으로 인하여 빚어진 가슴 아픈 피해는 또 그 얼마나요.…》
>
> …
>
> 《그건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어떤 방법으로든 도청 또는 강압적으로 실토당하게 되지 않을가 하는 불안 때문에 뇌파콤퓨터를 없애야 하겠습니까. 과학 발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여서 그러한 도청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역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25)

위 부분에서 신성화는 '경외'로 향하는 신성이다. 과학은 마치 신처럼 선한 모습이기도 악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으로부터 선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 선에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 덕으로 인하여 빚어진 가슴 아픈 피해'는 류진의 의해 '상대적'이라는 말로 무화된다. 그러나 과학의 존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과학의 존재는 애초에 절대적이며, 그것을 믿는 신자의 '태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학(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은 절대적 찬양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신성함은 신자의 '경외심'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북한의 과학에 대한 신성화 과정은 바로 위와 같은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25) 엄희철, 「다시 만난 두 사람」, 『청년문학』, 2014.03, 55~56면

이러한 자유로운 비판은 오히려 전체주의적 토양을 만든다. “파시즘을 위한 토양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무조건적인 연루나 대의에의 헌신을 잠재적으로 ‘전체주의적’ 광신으로서 의심하고 탄핵하는 바로 그 자유주의적인 태도인 것이다.”[26] 북한 체제 내부에서 과학이 신성화될 수 있는 이유, 즉, 전체주의적 믿음이 양산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북한 내부 체제의 자율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감시라는 주제는 나름 북한 외부에서 볼 때 자주 나오는 이슈인데, 이를 소설 내부로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데올로기의 무의식적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감시당할 것이라는 불안은 역설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 정책에 대한 불안을 표층화하면서도 류진이라는 청년 표상을 내세움으로서 북한의 내부 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서사라고도 볼 수 있다.

「새날이 밝는다」에서도 뛰어난 청년과 그 청년의 과학신성주의가 잘 나타난다. 학철이라는 유전자 과학자는 귀남리에 와 토마토를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유철은 오해선을 가진 인물로 학철의 말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믿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이란 요지경처럼 신비롭다지 않은가? 혹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 어이 알랴!”[27]와 “그러니 내가 유전학의 신비의 세계를 미쳐 몰랐구나!”[28] 같은 부분이 그렇다.

> 《하하, 내 그럴줄 알구 연구사선생을 따라내려 보냈댔소. 현대과학을 몰라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걸 아마 단단히 느꼈을테지? 그래 내가 일전에 내려보낸 유전자에 대한 책은 보았소?》
>
> 유철은 저도 모르게 뒤더수기에 손이 갔다.
>
> 《글세, 보느라군 하는데 어디 시간이…》
>
> …
>
> 《알고 있소. 첫 도입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래 반장동문 처음부터 성공할줄 알았소? 유전학은 힘든 과학이요. 그러나 유전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식탁을 푸짐하게 할수 있는 과학이라는 걸 난 강습기간에 다시 한번 똑똑히 느끼게 되었소. 그러니 연구사 선생을 잘 도와주도록 하오.》 [29]

이 부분에서는 과학의 ‘구원’을 강조한다. 현대과학을 ‘모르는 것’은 마치 아직 신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유전자에 대한 책’은 과학의 성경이며

---

26) 슬라보예 지젝, 앞 저서, 225면.
27) 신승구,「새날이 밝는다」,『조선문학』, 2014.04. 67면
28) 신승구,「새날이 밝는다」,『조선문학』, 2014.04. 69면
29) 신승구,「새날이 밝는다」,『조선문학』, 2014.04. 68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의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 교리로 작동한다. 이때 이 과학의 교리를 묵묵히 수행하는 인물이 바로 청년 과학자이다. 라캉이 '신은 무의식이다'라고 한 바를 참고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과학은 이데올로기적 욕망이 담긴 '무의식'일 것이다.

「숲을 사랑하라」에서도 석일벽 연구사는 소학교 시절부터 과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서도 "《일벽동무, 과학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지식이라고 하지만 난 안된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하면 된다고 계속 달라붙어야 끝장을 보게 되는 분야라고 보오…》"[30]와 같은 과학신성주의가 나타나 있다.

이외에도 「밝은 앞날」에서는 주인공 지명이 "대학 시절에 다기능박막에 대한 론문을 발표하여 뛰어난 수재로 알려진데다 연구소에 배치된 후 3년간 여러종의 다기능 박막들을 연구개발하여 20대에 박사학위까지 받은"[31] 아주 뛰어난 인물로 설명된다. 다른 소설에서도 직접적으로 청년 과학자에 대한 뛰어남을 묘사한 부분은 없으나, 대화나 사건 해결의 과정 속에서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들어낸다.

중요한 것은 '과학환상소설'이라는 장르에 있어 '과학'에 대한 당 정책과 그 신성화에 대한 표현이 주목되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로 경제적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북한의 여러 문예지에서는 '과학기술 강국'과 관련된 소재의 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했다.[32] 이때 '과학기술로 경제적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테제는 북한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은유적인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이 없는 북한에게 있어 '과학기술'과 그 발전은 북한의 경제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마법', 즉 환상적인 시나리오로 작동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유토피아'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유토피아는 '현실에 없는 공간'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결여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는 강국을 과학기술의 목적으로 삼과 이를 통해 경제와 국방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33] 그러나 지신영의 평가처럼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문학은 '현재 진행형의 사회주의 낙원만'을 그리고 있고 기술적 유토피아만을 부각하고 있다."[34]

이러한 사회주의적 낙관론과 '청년' 정책은 미묘하게 북한에서 결합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2년 1월에 청년중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고 '청년들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 영웅적 위훈을 세울 것'이라며 청년의 표상을 '영웅'과 등치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기존의 '고난의 행군 시기'의 혁명적 정신을 강조하며

30) 리명현,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2016.01. 68면
31) 엄호삼, 「밝은 앞날」, 『청년문학』, 2019. 10. 53면
32) 지신영, 앞 논문, 87면
33) 지신명, 위 논문, 91면
34) 지신영, 위 논문, 96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청년의 표상을 ‘영웅’으로 제시하는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영웅’의 유형들을 정의하고 청년들에게 제시함으로서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수행하고자 한다. 북한은 ‘청년영웅’의 표상을 앞세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등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수행문이 성공한다면 ‘청년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북한의 청년이데올로기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도덕과 법> 교과서에 나오는 영웅들이 그러한 표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 시대의 영웅 중 영웅은 우주강국과 국방과학 등 과학 분야에서 활동한 청년들이다. 실제로 공화국 영웅중 대부분이 국방과 첨단 과학기술에 참여한 청년 연구자들이다.[35] 김정은 체제는 현대화 과학기술화를 실천하는 ‘청년영웅상’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36] 이는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과학환상소설의 청년 주인공과 아주 일치한다. 북한의 문예체제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당 정책의 즉각적인 반영과 속도전이다. 당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작가들은 서로의 작품 합평과 토론을 통해 당 정책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를 속도있게 전개함으로서 당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수행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문학과 예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웅상’이 강조될수록 오히려 청년세대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청년들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며 국가로부터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국가에게 의무와 헌신을 요구’ 받고 있다. 김정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들의 언행부터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고 한다.[37] 결국 북한은 문화예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통해 국가에 충성을 다할 청년의 ‘영웅’ 표상을 제시하고 이를 주체들이 따르게 함으로서 국가의 원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의 역할은 1) ‘혁명적낙관주의’ 담론 제시를 통한 정치사상교양강화, 2) 숨은 영웅형 과학자상 제시를 통한 당과 수령을 향한 충실성 교양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38]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청년, 특히 남성 청년 과학자는 아주 비범한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생략되어 있다. 오히려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오해를 사거나, 기존 체제에 저항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가 믿는 것은 과학이며, 이 과학인 신성한 것으로 추앙받는다. 전형적인 메시아 서사가 나타나 있지만 앞서 서동수이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김정은’으로 은유되는지는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체제에 저항받거나 오해받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남성 청년 과학자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절차’다. 이 절차 속에서 주인공은 바로

35) 송현진, 앞 논문, 253면
36) 송현진, 위 논문, 254면
37) 송현진, 위 논문, 237면
38) 임인화, 앞 논문, 참고.

실험이나 과학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수난'은 현재 김정은이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북한의 '청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과학에 대한 신성함을 매우 강조하며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영이 크다. 파스칼이 '신에 대한 내기'[39]처럼 북한의 과학 신성주의는 계산과 논리에 따른 믿음을 강요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과학중심주의는 파스칼이 말하는 '믿음'의 형식과 같이 과학 내부의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상한다. 소설 속 청년 과학자들이 '애초에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북한 사회 내부의 고난의 시기와 같은 사건이 없다는 것도 일련의 요인일 수 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작인'을 심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청년들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명령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초자아적인 명령'이다.[40] 청년은 애초에 뛰어나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과학에 대한 끊임없는 신성함을 보여줌으로서 청년들을 과학자로 양성시키려는 이데올로기적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에 발달 되어 있지 않은 결함을 숨기기 위해 '과학' 자체에 신비를 부여함으로서 과학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그 타개의 역할은 청년이라는 것을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젝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장에서 실정적 내용들이 바뀌지만 그러한 장을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매듭, 누빔점이라고 말한다. 떠도는 기표들을 하나록 묶음으로서 의미가 고정된다는 것이다.[41]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김정은, 사회주의 등으로 묶일 수 있지만 정책적 노선으로 봤을 때 과학환상소설은 수령이 아닌 과학 담론으로 엮이는 것을 볼 수 있다.

4.2 청년 여성 과학자의 과학적 보조와 정서적 보조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에서 여성 과학자는 대부분의 과학환상소설에서 나타나며 주인공인 남성 과학자와 협력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보조자 역할을 한다. 직접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혹은 그러한 분위기를 암시함으로서 정서적으로 남성 과학자를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구도는 독자가 될 청년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함도 있겠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과학적 능력에 대한 차별 없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 8작품에서 청년 여성 과학자의 과학적 보조와 정서적 보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 외의 작품들은 청년 여성

39)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 때의 손익을 따져보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기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당신이 져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그러니 망설일 것이 없다.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어라.

40) "너는 섹스를 즐겨야 한다.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섹스를 하지 않을 변명거리가 없다. 만약 그래도 섹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결함이다" 토니 마이어스,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2008. 110면

41)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49면

과학자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차이의 발생은 아마 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일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외된 두 작품 모두 남성이 자체적으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애초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작품명	남성 청년 과학자	여성 청년 과학자	서사 내용
다시 만난 두 사람	김류진	순영	김류진의 과학기술 논문에 우려를 표하다가 아버지가 남긴 선행 연구를 이어받은 것을 보고 김류진을 지지
두 극의 방정식	정민	옥주	젊은 과학자 정민이 스승과 함께 실험을 하다 서식지에 피해를 입힘. 옥주는 그것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그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에 감동하여 사건을 해결함.
새날이 밝는다.	김학철	영심	생명연구원 학철이 유철의 토마토를 보고 이보다 더큰 토마토를 키울 수 있다고 공언함. 유철은 기존의 성과를 무시하는 학철이 미웠으나 영심의 지지와 학철의 과학 성과로 인해 용서함.
밝은 앞날	지명	명옥	지명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명옥이 반대의 견을 내지만 지명은 명옥의 총명함을 알고 오히려 공동사업을 제안하게 됨. 이후 사랑의 감정이 트이고 명옥의 보조덕에 실험은 성공하게 된다.
항로를 바꾸라	석진	니나	석진은 조국을 믿어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 비행기를 조선으로 몰게하고 니나는 지속적으로 그를 지지함.
숲은 젊어진다	수림	영미	서로 다른 과학 연구 때문에 갈등하지만 결국 수림과 영미가 각각 서로의 과학 자료를넘겨줌으로서 해결함.
숲을 사랑하라	일벽	김휘	김휘가 늑대들에게 둘러쌓여 있을 때 일벽이 나타나 구해주고 이를 계기로 김휘의 연구와 종합하여 과학 실험에 성공함.
광명성에서 날아온 전파	영준	란희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나 란희가 방법을 고안해해 영준을 구함

<표4-과학적·정서적 보조자로서의 여성 과학자의 서사구조표>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밝은 앞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 그후 공동연구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감정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청춘의 사랑은 조국을 위한 불타는 정열과 탐구심과 함께 그들이 2년만에 빛전기전환효률이 70프로인 《ㅂ-1》 호재료의 시제품을 연구개발할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추동력이 되여주었다.[42]

과학적 견해차이를 넘어 남녀의 사랑을 통해 과학적 열정을 조국을 위한 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녀의 구도는 남자를 보조하는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남녀평등이 되었다는 북한의 교리에 있어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 사회적인 부분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사랑 역시도 사회에 종속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위한 보조적 역할로 강조되고 이에 따라 가부장 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랑이 과학적 열정에 대한 은유적 감정으로 나타남으로서 '과학신성주의'에도 일조하고 있는데, 신성함은 곧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촉발된다. 신성함에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성함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이 신성할 수 있는 이유는 청년이 처음부터 과학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유적 감정으로서 여성과의 사랑은 보조적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두 극의 방정식」은 청년 과학자가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로학자를 위하여 자신의 오해를 뒤집어 쓰고 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앙심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 과정에서 옥주는 서식지의 어류가 죽은 사건을 탐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민이 가진 과학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게 되고 로학자를 만나 그 오해를 풀어 절차에 무리 없이 실험에 성공한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구조 역시 남성 과학자가 여성의 보조를 통해 실험에 성공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의 보조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동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청년 과학자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여성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과학신성주의를 깨닫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은 이때 메시아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메시아의 희생과 사랑을 느끼는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여성은 과학신성주의의 산물로 자리 잡는다.

「새날이 밝는다」에서는 유철이라는 인물이 오해선을 담당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유철은 귀일리에서 열시히 일하는 작업반장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

42) 엄호삼, 「밝은 앞날」, 『청년문학』, 2018.10, 54면

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여 청년 과학자들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나, 과학의 교리, 근거들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은 전통적인 북한의 창작방식과 맞닿아 있는 것인데, 북한사회의 사상에 있어 이미 사회주의 주체인간은 완성되었지만 단지 더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을 북한 사회에서는 악인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영심이란 여성은 앞서 언급한 「두 극의 방정식」의 여성과 달리 청년 과학자에 대한 두터운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여성은 흔들리지 않고 청년 과학자를 지지한다. 이는 개도된 신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남성' 과학자가 결여된 지점을 '여성' 과학자가 채우는 것은 단순히 '성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남성' 과학자는 메시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측면도 가져야 하는 현대판 예수다. 이때 여성은 정서적 보조를 하거나 과학적 보조를 통하여 남성의 결여를 메우고 있다. 지젝과 라캉에 의하면 남성은 오염된 성적 감각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더 나은 부분, 이상적인 것, 영적인 측면을 사랑한다. 남자는 여성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이상을 여성에게 투사한다. '남성의 증상은 여성'이라는 라캉의 발언을 참고해볼 때 여성의 '보조적' 역할은 오히려 여성의 권위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다른 주요점은 여성이 남성 과학자와 상징적 동일시를 한다는 것이다. 상징적 동일시는 우리가 관찰 당하는 위치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위치와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 주체는 남성을 위해 이 역할으 떠맡는 것이며 남성을 응시함으로서 특정한 이미지를 양산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이미지이자 북한이 청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오브제인 것이다.[43]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에서 '여성'은 없다. 오히려 '남성의 증상'으로서나, '남성의 결여'로서 이데올로기적 균열을 보여준다. "주체로 하여금 라캉이 분리라고 부른 일종의 '탈소외'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타자 속의이러한 결여이다. … 대상이 타자 자신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다는 것, 타자 자신도 '그것을 가질 수 없으며', 최종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 타자 자신도 장애물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며 따라서 욕망한다는 사실을, 타자의 욕망도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체가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타자 속의 이러한 결여는 … 주체는 기표 속에서의 완전한 소외를 모면하게 된다. 물론 자신의 결여를 메움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을, 자신의 결여를 타자 속의 결여와 동일시함으로써 말이다."[44] 이는 북한 내부에 있어 남성의 권위가 많이 미약해졌음을 보여주는 반적인 모습이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완벽할 수 없음을, 그것이 정서적이든 과학적이든 여성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

---

43)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76면
44)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03면

그러나 이러한 지젝적인 지점을 제외하면 여전히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분명히 검토된 소설들은 '주체적'으로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즉 남성 체제 내부의 일어난 일들을 '여성'이라서 해결하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북한 사회가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기존 북한 문예에 있어 제국주의 세력은 늘 가정된 타자로서 자주 등장했다. 북한의 이데올로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대적 타자의 가정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이데올로기적 환영이었다. 이 환영은 과학환상소설에서도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가정된 타자가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 타자라는 것이다. 미래의 시간을 다루는 과학환상소설에 있어 북한은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세계와의 화합이 아니라 적대적 타자의 절멸을 추구하는 북한의 입장에 있어 이 가정적 타자인 제국주의를 그대로 두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균열이 생겼음을 그대로 의미한다. 적대적 타자가 사라지는 순간 북한 주민을 규합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특정한 논리가 제거되어 버린다. 따라서 북한이 승리해야할 시간인 미래에서도 제국주의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북한의 현재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난점을 그대로 표출한다.

물론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의 주제나 사상들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강렬한 비판이 중점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지만 제국주의 세력과 과학적 환상의 접점은 이처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트깅 「항로를 바꾸라」는 비행기 테러 이야기로, 주인공 석진이 탄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으로 항로를 틀어 북한의 과학기술로 모두 구출받는다는 이야기다.

니나는 "뉴욕에서 함께 더나올 때부터 석진을 호의를 가지고 대해오는터였"고 니나의 미모 역시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이러한 묘사는 지속적으로 석진의 행동을 지지하는 감정적 논리를 마련한다.

> 석진은 진정으로 이 외국인 가족에게 동정이 갔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겪었을 이들의 비참상이 눈앞에 그려져 석진의 가슴속에서도 짜릿한 애상이 공명을 일으켰다. 《자유세계》에 현혹되어 자기들의 조국을 떠나온 형형색색의 인간들이 뉴욕의 거리를 방황하는 가궁한 모습들을 수많이 보아온 석진이었다.[45]

45) 리금철, 「항로를 바꾸라」, 『청년문학』, 2018.10 72면

위와 같은 《자유주의》 세계에 대해 북한의 입장처럼 불행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소설에서 곧 폭탄이 비행기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자유세계'의 시민들은 다 포기한 듯, 방탕한 모습을 보였고 니나를 겁탈하려고도 한다. 제3세계 중동 사람들 역시도 기도할 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역시 종교를 부정하는 북한 사회주의의 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한편 폭탄은 니나의 아버지 와씰리 박사는 미국으로 망명해 <자유>와 <민주주의>, 자본에 현혹되어 전쟁에 사용될 미사일을 연구하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뉴욕의 갱들이 폭탄을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문제는 당시 한국의 미사일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가지고 있는 음모는 반인륜적인 연구사업으로 세계를 파괴하는 연구라고 와씰리 박사는 주장한다. 결국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는 미싸일공격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석진은 이 사실을 폭로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여객기로 구할 수 있다는 연락이오고 모든 사람들은 조선(북한)으로 향하자고 한다. 그리고 석진에게 많은 자본을 넘겨주지만 석진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설은 마지막에서야 과학적 환상을 드러내는데, 완전한 '과학환상소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소설 다른 과학환상소설과 달리 김정은의 메시아적 모습을 적극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지금 석진은 자기 조국의 거대한 광체로부터 뿜어져나오는 빛발에 조명되여 이 려객기 안에서 《구세주》로 떠받들리고 있는 것이다"[46]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즉 여객기는 세계의 축소판이며 미국이라는 암적 존재로 인해 세계가 위기이지만 북한은 이를 폭로하고 조선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서사를 구축한다. 「항로를 바꾸라」는 이와 같이 과학보단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로 판단된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것은 메시아적 구도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 소설이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는 과학적 환상보다는 메시아적 구도를 통해 세계를 구원하는 사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국은 과학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현재적인 과학적 해결을 담고 있지 않다. 이미 완성된 천국으로서 조국을 더 강하게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완성된 북한의 모습을 이데올로기적 환영으로 표현함으로서 북한 주민의 심리조직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광명성-30》 호에서 날아온 전파」는 우주과학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한다. 노과학자는 자신의 아들이자 우주비행사인 영준을 보낸 아버지기도 하다. 영준은 조국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인공위성 <광명성>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에 대한 은유로도 보여지는데, 그것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온갖 책동을 했다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 역시도 반미주의,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잘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이 제국주의 세

46) 리금철, 「항로를 바꾸라」, 『청년문학』, 2018.10 77면

력은 광명성을 방해하기 위해 운석을 조종하고 영준은 자신이 죽더라도 이 사건을 이겨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 과학자 란희로 인해 해결책을 찾게되고 오히려 운석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보내고 우주발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보낸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즉 '원쑤'라는 타자는 북한의 적대적 태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이러한 '타자'를 상정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반면적으로 보여준다. "이 특수한 '뒤틀림', 즉 보편적 개념의 '전형'으로 선전되는 그 특수한 내용은 환상이라는 요소, 즉 보편적 이데올로기적 개념의 환상적 배경/지탱물이라는 요소다. … 이런 환상적 특화는 결코 무의미한 삽화 예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패 여부는 어떠한 특수한 내용이 '전형'으로서 헤아려질 것인가라는 바로 그 층위에서 결정된다."[47] 즉 제국주의의 섬멸은 과학환상소설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과학신성주의도 '악'을 섬멸하기 위한 '상대적 진리'를 획득하며 담론적 층위를 갖게 되고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한 섬멸적 의식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게 만든다. "체계가 개선되면 제거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체계 자체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입증해준 데 있다"[48]는 지젝의 주장은 이와 같이 작용된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이 '적대적 제국주의'를 보이는 이유는 담화적 차원으로 이데올로기 텍스트의 증상을 읽는 독법을 통해 즉각적인 경험을 해체하고 부유하는 기표들을 조립함으로서 누빔점을 통한 전체화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가 환상 속에 구축된 이데올로기 이전의 향유를 함축하고 조작하고 산출하는 방식이다.[49]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목적은 결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적대적 제국주의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

결국 사회적 환상이란 개념은 적대라는 개념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물이다. 환상은 자기 자신의 균열을 미리 고려해 넣은 방식으로 사회적·상징적 동일성을 부과하는 모든 동일시 작업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함축한다. 사회의 정상적 작동의 퇴화처럼 보이는 것들, 전쟁이나 경제 위기들은 체계가 개선되면 제거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체계 자체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입증하는데,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은 이러한 위기들을 가정한다.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체제의 선언들은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한 축을 구성한다. 인간은 진실 자체를 이용해서 타자를 속인다. 북한의 위기는 진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해결 방법은 적대적 제국주의를 가정함으로서 온다. 가정된 주체로서 적대적 제국주의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유시켜주는 환상적인 타자다. 제국주의에 대한 지식 기반은 환영이며 그것은 타자 속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환영을 통해서만 그 지식을 만들어낸다. 북한 이데올로기의 환영은 애초에 적대적 타자가

47)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05. 283면
48)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11면
49)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208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환영이 환상적 타자(제국주의)를 구성함으로서 그 타자가 있고 그 타자에 대한 정보가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간주된 타자를 향하는 일종의 암호인 코드화된 메시지, 즉 증상은 세계가 실패하는 곳에서 제국주의가 실패하는 곳에서 출현한다. 그것은 일종의 다른 방식을 통한 소통의 연장으로 오히려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세계와 단절됨으로서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이 증상은 해석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이다. “구조적으로 증상은 일관되고 완전한 타자의 영역을 전제로 하는데, 왜냐하면 증상이란 형성물은 자신의 의미를 가진 타자를 향한 호소이기 때문이다.”[50]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그 어떠한 실제적 대상물이 아니다. 북한이 창조한 이데올로기의 환영이며 이 환영에 비친 이미지들, 혹은 기표들이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국주의는 사실상 몰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와 동일시되는 상상적 동일시는 오직 북하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다시 말해 과학환상소설이 김정은 시대에 두드러진 것은 본래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의 결합을 추구하는 과정 속의 결과물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피착취/피지배 다수자가 자신의 본래적 갈망들을 인지할 수 있을 일련의 특징들을 통합시켜야 한다.”[51] 하나는 ‘제국주의’(원쑤)라는 본래적인 것과 과학을 신성화함으로서 오는 이데올로기적 왜곡이다. 따라서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는 흉포한 경쟁과 착취에 반대하는, 진정한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에 대한 본래적인 대중적 갈망을 ‘조작한다.’”[52]

따라서 적대적 타자로서의 제국주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속되어야 하는 가장 큰 ‘가정’이다. 이 가정을 붕괴시킬 수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제국주의는 북한과 함께, 필수불가결적으로 존재해야하는 대상이자 기필코 제거되어야 하는 타자이다. 이 타자의 존재를 통해 북한은 계속적인 이데올로기의 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

4.4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

「존엄」은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 중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화폐가 사라지고, 스스로의 봉사와 지능의 대가로 사회가 운영되는 <고려>체계에 대한 내용이며 루이스라는 외국 청년이 조선에 있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독특하게도 소설 초반에 현실에 대한 우화로 시작하는데, 《석유왕》 이라던가, 《금융왕》 과도 같은 자유세계 국가의 체제에 대해 봉건적인 제도로 설명함으로서 자유세계에 대한 은밀한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

50)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29면
51) 슬라보예 지젝, 앞 저서, 298면
52) 슬라보예 지젝, 위 저서, 299면

> 독점자본가들이 고안해내군 하던 금융위기와 전쟁이라는 폭력에 의거한 구조변혁도 아니었다. 인간의식과 인간지능의 발전에 기초한 사회변혁이었다. 그 선봉에는 최근 인터네트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고려》 체계 프로그람을 개발한 고려연구소가 서 있었다.[53]

이들은 <화폐위기>라는 표제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화폐위기는 다름아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벌어진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몰락을 유물론적인 과학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김일성주의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맑스주의적 입장을 강조함으로서 본론적인 사회주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재귀성은 이전의 본래적인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무의식적 반응이 아니다. 원기억처럼 원래적인 이데올로기적 기억을 재소환함으로서 이데올로기의 교리를 재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에서 자본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다. 자본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의 입장에서 모두의 공동적인 지점이 존재해야하는데 그것이 곧 화폐이다. 그라나 화폐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사실상 사회주의의 목적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지상낙원을 추구해야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화폐는 암적이다. 특히 장마당 세대, 청년 세대는 자본의 가치를 너무나 잘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냉소적 주체이다. 지젝의 지적대로, 냉소적 주체는 자신이 이데올로기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한다. 탈-이데올로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냉소적 주체 역시도 이데올로기가 지식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차원에 있다. 이 행위는 교환을 통해서 작동한다.

「존엄」 이런 측면에서 완전한 교환가치의 대상물을 상실한 듯 하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희생과 참여 정도를 통해 복지의 차원을 두는 것은 마찬가지로 화폐만 없을 뿐이지 사실 상 자본은 살아있는 것이다. 완전한 사회주의적 인공지능시스템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그 판단을 인간이 아닌 AI가 한다하더라도 결국 그 분배에 있어 차등이 생기는 것은 차등화된 교환가치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독특한 설정으로는 《천사》 라고 불리는 비밀폭로웹싸이트 운영자의 등장이다. 이는 북한이 주도해야만 하는 주체적 입장이 아닌, 북한 외 세계에서도 자본주의의 폐해를 폭로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주인공 루이스의 친구 멜본이다. 이러한 독특한 구도는 고립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특정 국가가 아닌 표층적이지 않은 집단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비밀 단체의 존재가 마치 가정된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가정된 주체로서의 비밀 단체의 존재성

53)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09, 48면

은 북한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 대타자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타자의 붕괴 이후에는 타자의 타자, 소위원회나 단체가 법과 제도로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규정한다. 법과 제도로서의 북한의 대타자는 붕괴되어 가정된 주체, 타자의 타자를 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 《선생님, 화폐가 없는 사회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고려> 체계의 총적 목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인간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에도 화폐에 의해 인간의 운명과 존엄이 우롱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군 합니다. 때문에 화폐가 없는 사회구조를 구축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참다운 존엄을 과시하는데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 …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까지는 화폐를 메개물로 진행되여온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이 매 사람의 사회적기여정도에 대한 정보를 매개물로 하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분석평가의 기준은 매 가입자들의 지능과 창조물들이 인류의 복리와 인류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저해를 주는가 하는 것이며 그 기초는 인간 사랑, 인간존중입니다.》 54)

위와 같이 과학기술과 사회주의의 교묘한 합치는 과학 신성주의의 기반으로 자리잡게 만든다. 화폐가 없는 사회구조는 곧 과학의 발전으로 사라질 것이며 그 주도는 북한이 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 그리고 단순히 북한 주민이 아니라 외국인인 루이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이데올로기적 설득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작가(혹은 집단창작자)는 생각한 것이다.

다만 주요 인물을 외국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하나는 세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돋보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주민들은 이론상 개도되어야 할 존재가 아님으로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설정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매력에 세계인들도 감탄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구축하기 위한 인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인간사랑과 인간존중에 대한 평가인데, 이 역시도 과학의 발전으로 해결하였다고 공언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학신성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신성주의 아래에 여성 역할의 보조화,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성,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감각까지 확연히 내재되어 있다. 북한의 과학적 환상은 그 내부에 이데올로기를 함의함으로

54)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09, 50면

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준다. 「존엄」은 제목만큼 인간의 존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메타포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AI이다. 이들이 말하는 존엄은 화폐가 사라지고 온전한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이다. 존엄은 타자와의 단독성이 서로가 보장하여 줄 때 발생한다. 처음부터 그 존엄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존엄하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차원에서 존엄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인류에 대한 봉사의 평가 역시도 사실 자본의 교환가치를 획득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어》라는 식당에서 그 봉사 기여도에 따른 다른 대접은 화폐라는 이데올로기적 물질이 없을 뿐이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 환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중요한 것은 식당에 온영과 봉사를 화폐나 신용카드가 아니라 식당에 온 《고려》 체계 가입자들의 지능과 지적창조물이 인류의 복리와 인류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주봉사기로 분석료해하여 제공하는 고려연구소의 자료와 정보, 후원에 의해 진행되는 미래형의 식당이라는 것이다.[55]

이러한 부분에서 고려연구소는 사실 빅브라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단지 이데올로기적 환영만으로 이것이 정당성이 있다는 묘사를 할 뿐이다. 인류의 복리와 발전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AI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문제를 과학의 신성함에 던지는 것과 같다. 과학을 신비롭게 묘사하는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은 과학을 '상위 신'의 차원에 둠으로서 그 존엄을 과학에게 양도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후의 전개는 멜론이 《천사》라는 것이 발각되고 국제 재판을 받지만 폭로에 대한 공헌으로 풀려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실 우화로 그려지는 각각의 <왕>들이 몰락하고 인간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끝맺게 된다.

즉 우화로 그려지는 <왕>들은 적대적 제국주의를 상징화한 묘사다. 우화의 효과는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현실을 경유하여 다른 세계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다른 세계의 모습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독자가 발견하는 것이 우화의 효과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왜곡되어 있다. 그것은 지젝이 말하는 '얼룩'처럼 세계의 관점을 뒤집는 증상이다. 앞과 뒤에 내놓은 미니멀한 우화들은 그 내부의 서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의미화 시킨다.

앞서 「존엄」과 달리 「밝은 앞날」에서는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어쨌든 내가 기본 말하자는 것은 실장동지와 명옥 동지가 공동으로 개발한 <ㅂ-1> 호 재료가 에네르기개발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킬 것이

55)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09, 51면

며 막대한 자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

《이자보니 우리 호준동무에겐 기업가가 되면 순식간에 부호가 될수 있는 자질이 있었구만.》

《까짓거 못될 것도 없지요. 현시대는 착상과 연구개발, 생산과 판매가 통합되는 시대이니까요.》 56)

이 부분에서 자본에 대한 청년들의 새로운 감각, 장마당 세대의 감각들을 저항없이 느낄 수 있다. 과학발전이 자본이 될 것이라는 것, 기업가가 되면 부호가 될 수 있다는 것, 단순히 농이라고 해도 북한 체제 안에서 그전까진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 청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구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존엄」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자본을 인지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양극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성 작가과 신인 작가 간의 감각적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 작가의 입장에서는 자본은 사라져야할 대상이자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나 신인 작가에게 있어 '자본'은 세계를 유지시키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상징적 질서이다. 현시대는 착상과 생산과 판매가 통합되는 시대라고 언급한 것이 장마당 세대의 의식을 돌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징적 질서를 아직 통합하지 못한 균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책적 노선에 있어서 이 자본에 대한 노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작가마다 자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자본적 감각에서 지젝의 논점을 참고하면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허위의식', 현실에 대한 착란적인 표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미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현실 자체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그것의 본질에 대한 참여자들의 무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이다. 즉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효과와 재생산 자체는 개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57) 즉 자본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사회주의 체제' 내부에서 자본주의라는 것을 '무지함'으로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56) 엄호삼, 「밝은 앞날」, 『청년문학』, 2018.10, 56면
57)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50면

5.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특징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신성주의의 가속화

과학신성주의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고립된 상황에 놓인 북한의 상태와 김정은 집권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과학을 신성한 이데올로기적 지위에 놓아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과학 기술을 통해 부국강병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중점적인 담론 역할을 하는 것은 과학일 것이다. 김정은은 이후에도 과학신성주의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여러 미디어에서나 작품에서도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는 굳이 과학환상소설로 구분하지 않고 『조선문학』에서 몇 편의 단편소설이 창작되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58] 그러나 이 과학신성주의의 효과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구축하더라도,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남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과학신성주의는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정착할 것이다. 과학환상소설이라 표기되지 않았을 뿐, 일반 단편소설에서도 청년 과학자를 중심으로 소설이 수록되거나 시가 창작되기 때문이다. 과학은 절대적인 담론으로서 북한 이데올로기의 우위에 둘 것이다. 문제는 이 신성화가 지도자의 신성성과 상징적 동일시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신성화는 과학이라는 유일적 담론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학신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결탁은 북한 정치 체제에 불안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북한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충분히 내적 설득성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도자가 바뀌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과학이라는 목표 이데올로기를 제시함으로서 그 불안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과학신성주의가 북한 미래에 있어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테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다. 새로운 지위적 담론의 출현은 대남 정책에 있어 과학기술의 지원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게 과학기술의 인도적 차원의 양도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남을 수 있다. 어떤 과학기술을 양도하든, 북한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를 선전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악용의 가능성을 볼 때 대남 정책에 있어 물질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더라도 과학기술의 지원은 상당히 고심해야할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58) 오태호,「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 최근『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븍한연구학회보, 27권, 북한연구학회, 2023.

② 메시아적 서사의 과학과 김정은의 동일시

메시아적 서사의 과학은 기존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집권 서사와 다르다. 구원의 서사를 과학과 일치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서사화한 것은 기존의 과학환상소설과도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강병은 김정은이 만들어가는 일종의 '구원 서사'로서 작용한다.

메시아적 서사는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 효과를 갖는다. 첫째, 지도자와의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권력에 대한 믿음을 양산한다. 둘째, 청년의 표상적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기존 청년들이 영웅적 청년을 욕망하게 된다. 셋째 '구원'을 예언하는 방식으로 부국강병에 대한 실제 도래를 유예할 수 있다. 넷째 '희생'적 이미지를 통해 북한의 수난과 고난을 정당화한다.

물론 북한의 메시아적 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령형상화문학에서 특히 메시아적 서사가 두드러지는데, 이것이 '과학'이라는 담론을 만나 새롭게 의미가 과학환상소설에서 구축된 것이다. 이때 청년들은 '과학'이라는 새로운 메시아적 담론과 신비성을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믿고자 하는 심리 조직을 만들게 된다. 한편 이 메시아적 서사가 일반적인 기독교 서사와 맞물리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에서도 메시아적인 서사 구도를 가져감으로서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담론적 구조에 있어 메시아의 위상학적 위치는 수행적 존재로서 작동한다. 특히 과학 신성주의와 함께 과학의 위상을 실천해야 하는 메시아적 존재들은 그 완전함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 완전성은 김정은과 상징적 동일시를 통해 완성된다. 서사가 기표를 채우는 기의적 환원성으로 돌입하게 됨으로서 메시아적 서서가 문예분야에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은 높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메시아 주의는 북한 지도자의 표상을 여전히 위치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통일 문제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의 양가적인 주체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북한 주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한 집권층이라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 어느 정도의 민주화로 인해 남한 주민이 통일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통일 정책에 대한 일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경우 다르다. 북한은 집권층이 통일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 집권층을 설득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맞는 통일 정책을 내놔야 하는 입장에 처한다. 북한 집권층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을 위한 복지적인 정책은 상당히 남한 내부에서도 갈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은 통일된 사회가 아니라 집권층과 주민으로 계급화된 정부집단이다. 이러한 양가성은 북한이 스스로 메시아적 지위를 내려놓치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남한은 양가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③ 장마당 세대의 자본 감각과 재미와 문예정책의 상관성

청년세대들은 장마당 세대로 자본에 대한 감각이 과학환상소설에서 나타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자본에 대한 감각을 통해 장마당 세대의 감각을 포섭하고 남녀 연애 서사를 도입함으로서 장마당 세대가 해당 작품들을 읽게 만들려는 문학적 재미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점에서 김정은의 문예 정책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아니라 재미와 공감을 통해서 심리조직을 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앞으로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이러한 재미를 더욱 문예정책적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은 자본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보다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본을 고립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인지함과 동시에 부국강병에 필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성적 인지에 있어 자본은 제거해야할 요소이다. 이 양극적인 반응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자본적인 인지에 있어 충돌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는 청년 세대가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예술을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이해할 것이라는 점이다. 장마당 세대들은 다른 문화적 콘텐츠를 이미 향유했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문화예술을 오히려 올드 미디어처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콘텐츠와 달리 국가 주도하에 이뤄지는 문화예술의 진실한 감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장마당 세대,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자본적인 감각과 재미를 문예정책적으로 더욱 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본에 대한 감각은 남한의 자본 감각과 다르다. 남한에서 자본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성의 문제다. 자본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를 통해 박탈감과 우월함을 획득한다. 이런 자본 감각의 차이는 추후 통일 문제에 있어 단순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 감각적인 차이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이때 통일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재미’라는 측면이다. 남한에서 콘텐츠가 가장 우위에 두는 것은 재미이다. 재미있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그 콘텐츠는 도태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미에 대한 북한의 문화콘텐츠의 변화는 굳어졌던 이데올로기 환영의 전달이 아니라 콘텐츠적인 의미로 변화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④ 김정은 집권 정당화에서 부국강병의 이미지로

집권 정당성의 경우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의 지도자들의 이미지들과 다르게 청년과 함께 부국강병의 이미지로 확장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제 청년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진 김정은에게 있어 부국강병은 청년과 함께 이뤄야할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집권시기부터 김정은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집권 정당화에 대한 문화예술적 이데올로기 환영을 초반에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는데, 애초에 '권력 정당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집권 이후 '부국강병'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이 권력 정당성의 문제를 지우고 부국강병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서 권력의 새로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국강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며 이 과학에 대한 메시아적 서사는 곧 김정은과 청년으로 귀결된다. 이 동일시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과학환상소설이 전달하고 있다고 보인다.

주민들이 원하는 환상 스크린을 구성하기 위해 부국강병의 이미지를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부국강병의 이미지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서사이다. 이 서사적 맥락을 통해 주민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지도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를 인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부국강병의 이미지에 있어 적대적인 타자를 늘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제국주의에 대한 '원쑤'의 재소환은 지속적일 수 밖에 없다. 부국강병은 타자보다 우월한 그 무엇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부국강병은 결국 관계성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⑤ 사회적 보조자로서의 여성 강조

분명 김정은 시대에 정책은 청년중시를 중점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주체적인 입장에 놓이지 못한다. 남성보다 과학에 대한 믿음이 나약하거나 연애의 감정을 통해 과학적·정서적 보조 입장을 취함으로서 남녀 차별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의 증상 혹은 결여로 본다면 청년 세대의 불완전함을 '여성'이라는 기표로 상징화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환상소설에서 '여성'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인데 앞서 언급한 '청년 세대의 불완전함'을 무의식의 차원에서 표현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북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지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 문학적 장치로서의 '여성'은 완전한 서사의 완성을 위해 희생되는 존재이다. 남성이 주도하는 메시아적 서사의 완성을 위해 예수의 마리아처럼 보조적인 신앙의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적 역할의 여성이 말 그대로 보충적 역할과 동시의 남성 중심

의 결여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 체제에 있어 여성이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와있다기보다는 관점으로서, 얼룩으로서의 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남성의 대칭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닌 결여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잘보여준다. 이에 따라 여성은 중심적인 지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이 지점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면 추후 통일 교육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조금더 강조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에 있어 여성은 배제된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 통일 이후 이러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남겨둘 경우 통일 주체에 있어 배제되는 존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⑥ 핵 중심주의에서 생산 중심주의로

기존에 핵개발과 우주를 소재로 과학환상소설이 전개되었으나 점차 핵이나 우주의 문제를 떠나 오히려 생산 중심주의로 변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점을 통해 더 이상 핵의 우위성을 강조하기보단 경제적 입장을 취하는 정책 노선을 발견할 수 있다. 과학환상소설이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을 주되게 다루는 것은 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핵의 완성은 북한 권력 유지의 핵심적인 사물ding이었다. 그러나 핵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즉 목표가 완수된 시점에서 김정은에게 새로운 사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과학 담론과 생산 중심주의다.

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력적 상징물로 작용할 것이지만,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는 경제적 부강이 핵의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핵이 언제나 미완의 산물로 남아야 하는데, 핵 완성이 곧 조국통일과 권력 집권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핵이 완성되는 순간 그 권력의 정당성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완전한 핵 개발은 늘 미뤄져야 한다. 완성된 과학기술이 없듯, 핵의 발전은 과학 담론과 결부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은 핵 개발에 대한 연장을 더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 개발에 핵심적인 것들은 모두 개발되어 있다. 그것은 김정일이 이뤄낸 성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핵 개발 자체가 완전한 미완이어서도 안된다. 핵 개발의 시간은 유예되어야 하나 너무 먼 시간으로 유예되서는 안된다. 이에 김정은 집권에 있어 보충적으로 제시되는 이데올로기가 과학담론과 생산 중심주의다. 과학 담론이 핵 개발과 연계가 되었듯이 과학 담론이 생산과 연계되면서 김정은 만의 특유한 권력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인다.

⑦ 과학=김정은=조국의 삼위일체

주지하다시피 여러 연구 논문에서 북한 지도자의 위상학적 위치화가 기독교의 서사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기독교적인 즉, 메시아적인 서사는 김 정권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서사였다. 그런데 김정은은 과학과 조국을 상징적 동일시화 함으로서 과학을 위해 일하는 것은 조국을 위한 일이며 동시에 김정은을 위한 일로 등치화한다. 이것은 기존의 지도자들이 만든 삼위일체 구도와 많이 다르다.

김일성이 적화통일을, 김정일이 핵 개발을 '교리'적 측면에서 정당화 했다면, 김정은은 그와 달리 과학을 교리화 함으로서 나름의 삼위일체를 구축해냈다. 지도자=조국의 구도와 공식은 앞선 지도자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유의미하다. 이것은 같은 신과 성서를 가진 유대교와 카톨릭의 관계와도 같다. 비유하자면 김일성이 유대교라면 김정일은 카톨릭이다. 유대교는 구약만을 성서로 여겼지만 카톨릭은 신약까지 내포한다. 교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제 김정은은 개신교적 입장을 취한다. 성서 자체의 교리를 변화시키기 보단 성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카톨릭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측면을 살피지만 개신교는 금욕적이면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김정은도 이러한 해석적 측면을 달리한다.

과학과 김정은 조국의 삼위일체는 하나의 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이해로 받아드릴 수 있다. 또한 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면모는 반드시 나타난다. 문제는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왜 삼위일체의 구성을 선택했느냐이다. 신과 인간은 다른 세계에 놓여 있다. 신은 신만의 세계에, 인간은 인간만의 세계에 있다. 신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영역을 구축한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세계에 개입할 수 없다. 반면에 신은 인간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존재다. 문제는 신이 직접적으로 인간 세계에 현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이 만든 세계에 직접 신이 강림하면 신은 인간 세계에서 예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은 인간를 닮거나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세계에 이적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은유적인 차원에서 과학과 청년 과학자와 지도자는 같은 위상을 가지면서도 다른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⑧ 우상화와 적대성

극장 국가로서 '북한'은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선전선동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단순한 문화예술의 선전선동이 북한 주민을 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논리가 펼쳐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선전선동은 결국 이미 북한 주민 내면의 심리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북한의 체제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우상화'와 '적대성'일 것이다. 우상화의 경우 유일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신성적 내면 논리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든다. 적대성의 경우 내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원쑤’라는 적을 상정하여 주체들을 규합하기 위한 중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북한 체제의 이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통일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과의 진정한 화합(내적 통일)에 있어 ‘우상화’와 ‘적대성’은 가장 큰 심리적 문제로 다가온다.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과의 진정한 화합은 그동안 쌓인 서로에 대한 ‘이질감’의 제거와 ‘동질성’의 확보일 것이다. 그런데 우상화와 적대성이라는 북한 특유의 이데올로기적 서사는 남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오랫동안 내재화된 우상화와 적대성의 논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선악의 논리로 화합을 이루는 것은 전적인 ‘흡수통일론’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바로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북한 특유의 우상화와 적대성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내재화하는지를 알아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선전 선동에 있어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북한의 문예정책은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기 위한 의례로서 작동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단순히 반복적인 ‘주입식’의 이데올로기로 이해했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의 메타포가 수용자에게 ‘공명’되려면 이미 수용자는 그 내적인 심리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지젝이 호명 테제에 대해 시민이 경찰의 부름에 돌아보려면 이미 시민은 그 자신이 시민임을 알아야 하는 공리가 존재한다는 맥락과 같다. 즉 북한 주민이 ‘문화예술’ 선전선동에 심취되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이미 주민 내부의 내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남한에서 독립투사의 활동에 감명하려면 시민 주체들은 이미 자기 국가 역사에 대한 지식적 차원의 믿음을 선행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학교(교육)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면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때 교육 교과서는 중요한 내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점이 된다. 교육은 시민들을 양산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이며, 특히 북한은 체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우상화’와 ‘적대성’ 심리 조직하기 위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6.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과학환상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특징들과 균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 북한의 사회 이데올로기의 분석 가능성을 탐구하고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10편의 과학환상소설

을 분석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과학신성주의가 나타났다. 과학 기술 담론을 신성화하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환영을 통해 욕망하게 만듦으로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여성 청년의 남성 과학자 보조역활이다. 여성은 남성의 증상이자 동시에 결여로서 상징화되고 이를 보완함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이다. 제국주의라는 '원쑤'를 상정하는 북한 문학의 특징은 여전히 계보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그 적대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타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다. 장마당 세대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들로 장마당이라는 자본적 경험을 해왔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과학환상소설에서는 자본에 대한 검열 없는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에 있어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신성주의에 있어 북한의 과학 기술 활용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코인 해킹으로 자본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과학 기술들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자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으로서 점차 경제적 영역을 넓힐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고립주의를 유지할 것이겠지만 경제적 성장을 이데올로기의 목표로 삼은 이상 경제 측면에서는 최대한 확장하고자 할 것이다. 3) 여성에 대한 인식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김여정의 등장과 권력적 위치를 점함으로서 어느 정도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4) 핵 개발의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문화예술에 있어 과학환상소설은 우리가 SF라 부르는 것과 상당히 그 축을 달리한다. 과학적 상상력에 대한 인지도 다르다. 북한은 과학적 환상의 촉발점을 현실에 둠으로서 과학적 환상이 실제로 도래하기를 추구하고 있다. 이점에서 과학은 '유토피아'적인 지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구축한 꿈같은 환영이 아니라는 지젝의 말을 참고한다면 과학환상소설은 단순한 문화예술적 환상이 아니다. 실재적인 어떤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을 은폐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환상, 그것은 "주체가 욕망하는 주체로 구성되는 것은 오직 환상을 통해서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욕망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59] 이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주체의 욕망을 구성하며 따르게 만든다. 문학, 특히 소설은 서사다. "공시적인 상징질서는 서사화를 통해 자기 "기원"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이다. 환상은 그 정의상 서사되어야 할 이야기의 구조를 지닌다.[60]

분단에 대한 우리의 상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모호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종전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60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한국전쟁, 이산가족, 등의 기존의 상흔을 넘어서 새로운 세대의 상흔들을 살

59)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24면
60) 슬라보예 지젝, 『그들은 자기가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430 면

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즉, 자신이 다친 줄도 모르는 이 '공허한 상흔'을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앞으로의 통일은 기성세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냉전이 끝나고 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는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 내셔널리즘적 감성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하기엔, 이미 통일은 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스로 붕괴한 북한을 흡수한 남한'이라는 가설일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회비용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이 '2등 시민'의 탄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충돌, 남한 자본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의 하층민화 등 염려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 어두운 통일 상에서 우리는 인문학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된 여러 문제는 인문학이 해결할 수 있는 범주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남한 인민과 북한 인민의 정서적 봉합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봉합을 이루려면 먼저 이 인문학이 같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통일인문학은 미래 가치가 충분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와 공유는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남북의 가장 큰 차이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즉 서로의 지배 이데올로기 이해는 '지배'를 상쇄시키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젝이 하나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체제를 끌어들여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한 것과 동일할 것이다. 둘째로, 인문학적 공유는 시민 가치를 동일한 위치에 둘 수 있다. 즉, 자본주의의 최고 기준인 자본을 떠나 서로가 같은 선상에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제도가 아닌 인문학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하는 것은, 상층부에서 내려오는 방식은 제도와 국가의 문제이지만, 인문학은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향하는 방법이기에, 두 가지 방식 모두 같은 지점으로 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통일 사회'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성원권', '환대의 권리'를 각자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권리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정치하게 그 권리를 만들어야 한다.

김현경은 '환대'의 개념을 '성원권'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61] 성원권은 인권과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벤하비브는 정치적 성원권을 둘러싼 보편인권과 민주주의 사이의 간격을 단지 규범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은 '이주 사회'에

61)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참고.

있어 이주민들이 국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국 사회에 안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 사회, 제도, 문화 등을 교육시킨다.

환대엔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로 나뉜다. '무조건적 환대'에 대해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무조건적인 환대는 타자, 새로운 이민자, 손님에게 그들을 규정하는 어떤 것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당신의 주권성과 집을 강탈할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 환대의 조건이다(당신의 공간, 집, 국가의 주권성을 포기하는 것). 참기 어려운 일이다. 62)"

하지만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는 법과 정치에 의해 제한을 가하는 조건적인 환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두 가지의 환대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63) 그런데 지금까지의 통일 담론들 대부분은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평화'라는 이름하의 '무조건적 환대'에 가까운 주장했다.

결국 우리는 '조건적 환대'를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 사회'의 논점이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주 사회'로서의 통일 국가 설정은 '흡수통일론', '통일대박론'과 다를 바가 없다. '이주 사회'의 개념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통일 사회'에 대한 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주체-주체'론이 아니라 '타자-타자'론을 제시하고'게스트 하우스론'을 제안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의 어떤 부분들도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당연한 관점이자 시각이다. 그러나 '함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가지 남과 북은 서로가 '주체-주체'론으로 통일 담론을 이끌어 왔지만 여야 하지만 '주체'의 형성은 '타자'에 있고 '타자'의 형성은 '주체'에 있기 때문에 '주체-주체'론은 각 주체들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반면 '타자-타자'는 서로의 양립이 가능한 시각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자'에 대한 '타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타자'역시도 '나'라는 타자로 인한 '타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자의 타자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타자성'은 타자간의 공통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타자는 '타인'이다.

환대의 권리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설명된다. 왜냐하면 '집'으로 찾아오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통일이란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62) 이병하, 「환대의 개념과 이민정책」, 문화와정치, 4집,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재인용 65면
63) 이병하, 위 논문, 65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런데 잃어버린 가족이 돌아왔음에도 '주인-손님'의 개념이 있다면 진정한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가족이라 할지라도 과연 서로가 그 집이 편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미 '주인'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집'의 개념이 중도적으로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 '게스트 하우스'는 소유주는 있어도 주인의 권리를 가진 이가 없다. 몇 가지의 규칙을 정하고 그 외에는 게스트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게스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불편'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공간, '불편'으로 배려하는 공간이 '게스트 하우스'인 것이다.

이 공간은 남과 북이 '타자와 타자'로 만날 수 있는 특성을 만들어 낸다. 서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내에서 서로 자유롭게 지내면서 '불편'을 감소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통일의 중간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야할 '게스트 하우스'는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지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먼저 건립해야 한다. 먼 친척이 와서 진짜 가족처럼 지내려면 가족도 가족이 될 시간이 필요하다.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다보면, 어느 덧 가족이 되어 있을 것이다. 食口(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말한다. 가족은 곧 식구이다. 가족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거주하는 형태로서 유지'하여 친화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의 중간 단계를 합의한 기존의 회담과도 일치한다.

통일 주체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게스트 하우스'에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내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되며 밥을 먹다보니 '공통점'을 알게 된다. '게스트 하우스'의 강점은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게스트 하우스'란 무엇이어야 하며 어떤 '실체'로 나타나야 하는가의 질문을 한다면, 논자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개념의 이해는 법학자, 정책담당자, 통일관계자 행정부, 통일부 등이 남과 북을'게스트'로서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법, 정책, 행정제도를 제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역할 담당을 위한 '전문가'인정 역시도, 이런 '게스트 하우스'에 지내면서 살림살이에 대한 역할을 나누듯이, 서로서로 공정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게스트 하우스'에서는 모두가 손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손님'과 지낼 수 있는 상태인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북한 이데올로기의 현재적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과학' 담론은 앞으로도 최우선의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던 발달하지 않던, 과학 담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권력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존 작품에서 찾기 어려웠던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국가의 요구, ‘원쑤’에 대한 적대적 감정들 역시도 앞으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의 이데올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이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문학사회학적 연구가 수행됨으로서 문예정책과 북한 주민의 심리 조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리금철, 「두 극의 방정식, 『청년문학』, 2014.08
리금철, 「항로를 바꾸라」, 『조선문학』, 2017.08,09
리명현,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2016.01
리명현, 「대양으로」, 『조선문학』, 2018.02
신승구, 「새날이 밝는다」, 『조선문학』 2014.04
신승구, 「《광명성-30》호에서 날아온 전파」, 『조선문학』, 2016.09
엄호삼, 「존엄」, 『청년문학』, 2017.09
엄호삼, 「밝은 앞날」, 『청년문학』 2018, 10.
엄희철, 「다시 만난 두 사람」, 『청년문학』, 2014.03
주병윤, 「숲은 젊어진다」, 『조선문학』 2019.09
김정철, 「우리 시대 요구에 맞는 과학환상소설을 창작하자」, 『문학신문』, 2018 2월 24일

[저서]

슬라보예 지젝,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5.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슬라보예 지젝, 『그들은 자기가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토니 마이어스,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2005.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논문]

강민정, 「김정은 시대 TV미디어에 나타난 북한의 청년 정책 연구-조선중앙 TV의 보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0권, 한국아시아학회, 2017.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5.
배영원, 「김정은 체제의 '청년중시' 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7권, 통일연구원, 2018.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환상성과 인물의 형상화 방식」, 동화와번역 27,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4.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수난의 서사와 메시아니즘」, 스토리&이미지텔링, 건국대학교 스토리엔이미지텔링연구소, 19권 2020.
서동수,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특이점 - 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77권 2020.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잉열정'과 과학적 해결 방식」,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73, 2016.
서동수, 「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파타포(pataphor)적 상상력과 향유 없는 유토

피아」,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55권, 2015.
서동수,「북한 과학환상문학의 내적형식과 교육서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2016.
서동수,「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형성과 소련의 역할」,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3권 2013.
서동수,「북한 과학환상문학에 나타난 과학의 현장성과 소련의 영향 -현장중심의 과학담론과 주제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 2015.
서동수,「북한 과학환상소설의 환상성과 인물의 형상화 방식」, 동화와번역 27, 동화와 번역연구소, 2014.
송현진,「김정은 시대의 '청년강국'과 '청년영웅'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5권, 북한연구학회, 2021.
오태호,「김정은 시대 북한문학에 나타난 과학기술자 형상화 고찰 : 최근『조선문학』(2020~2022)에 게재된 시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븍한연구학회보, 27권, 북한연구학회, 2023.
임인화,「교양교육 제재로서 북한 과학환상소설 역할 연구-『조선문학』,『청년문학』,『아동문학』 수록본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전일구,「북한 청년에 대한 기대역할 변화 양상 연구 :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지신영,「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향하는 과학환상소설 분석 :「숲을 사랑하라」,「숲은 젊어진다」를 중심으로」, 고황논집, 69,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황일화,「북한의 청년중시정책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